

기획주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만남

제 4 주제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

김 성 희

(국무총리비서실 기록연구사)

1. 서론

기록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개인이나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 유지 및 보존한 기록은 법적·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의 생산과 이용을 둘러싼 상황을 알아야하며, 기록 생산의 맥락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록 생산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문,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맥락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즉 생산자의 이름을 비롯하여 전기적 혹은 역사적 정보, 활동 및 책임에 관한 정보 등이 기록물의 생산 맥락을 알려주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이러한 맥락정보를 기록물 기술에서 오랫동안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생산자 전거제어를 비롯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Pitti(2004)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이 모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지만, 특히 아카이브는 일차적 증거로 간주되는 공공기록과 개인적인 문서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생산자 기술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국제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1999)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표준으로 국제기록물생산자전거제어규칙인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Second edition*(2004)을 발행하였다. ISAD(G)에서 일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맥락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기록물에 관한 정보와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 분리된 생산자에 관한 기술은 현대 조직 구조상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가 있다. 또한 생산자 기술과 기록물 기술은 서로 연결되어 생산자들 간의 관계, 생산자와 기록물 간의 관계, 생산자와 다른 자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는 맥락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아카이브를 여타 다른 정보기관과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전거레코드의 생산은 생산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아카이브들 간에 혹은 정보기관들 간에 전거레코드를 교환하여 공유할 수 있다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관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을 기록물 내용표준인 ISAAR(CPF) 2판과 구조표준인 EAC(Encoded Archival Context)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 이질적인 정보서비스 기관별로 구축된 맥락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한 모델로 EAC를 적용하여 제시한 유럽의 LEAF(Linking and

Exploring Authority Files) Project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

2.1 생산자 전거제어의 개념

전거제어란 “도서관 목록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해진 기술적인 과정”(Clark 1990, 1)으로서 목록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주된 사명으로 하며 목록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도서관이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체계적인 서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서지시스템의 체계는 전거제어를 통해서 비로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일찍이 자료의 목록규칙에 전거제어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영미목록규칙 2판(AACR2)의 편집자인 Gorman(2003)은 “목록은 표준화된 접근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전거 제어는 표준화의 필요한 정도를 이루기 위한 메카니즘이다. 전거 제어에 있어서 어휘 통제는 접근점 및 표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에 있어서 전거제어는 목록에서 접근점(access points)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로 구성된 전거파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목록의 구조를 결정짓는 접근점은 서지레코드나 상호 참조의 기입항목이 된다.

Burger(1985)는 전거레코드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보았다. 첫째, 접근점의 표준화된 형태를 기록하는 것, 둘째, 같은 접근점을 가진 모든 레코드를 한 데로 모으는 것, 셋째, 목록 레코드를 표준화시키는 것, 넷째, 접근점의 선정과 관련된 결정사항과 정보원, 다섯째, 전거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접근점들을 기록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거레코드는 표준화된 접근점, “see” 참조가 된 모든 형태의 표목들, “see also” 참조에 의한 전거 레코드간의 연결, 표준화된 접근점이 추출된 정보원 등으로 구성된다. 목록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거레코드를 모아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전거파일이 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상세한 기술보다는 그 명칭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도서관 전거레코드와 아카이브 전거레코드는 기술에 있어서 표준화된 접근점의 생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기록물의 생산자명은 기록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접근점의 하나로서 엔티티(주: 개인, 가문, 조직 등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행위주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며 그 엔티티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엔티티와 구별시켜 준다. 반면 아카이브 전거레코드는 도서관 전거레코드와 달리 전거나 표목의 제어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에 대한 상세한 전기적·역사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ISAAR(CPF) 2판의 1.2항에서는

아카이브 전거레코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 a. 아카이브 기술 시스템 내에서 조직, 개인, 가문 등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기술하는 것
- b. 기록물 기술에서 접근점의 생산 및 사용을 통제하는 것
- c. 다른 기록물 생산자들 간의 관계, 엔티티와 그 엔티티가 생산한 기록과의 관계, 엔티티가 생산하였거나 그 엔티티에 대해 다른 다른 자원들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 등이다.

아카이브 전거레코드는 상기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 전거레코드에 비해 보다 상세한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정보 및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맥락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위해 기술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은 3장의 ISAAR(CPF) 2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해 별도의 맥락정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2 맥락정보 구축을 위한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의 필요성

기록물 생산에 대한 맥락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분리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분리된 생산자 정보는 전거제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맥락정보 구축을 위한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기술(description), 검색, 정보교환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다.

전통적인 기록물 조직의 원칙인 *respect des fonds*은 출처(provenance)와 원질서(original order)를 합한 개념으로서 '개인, 가문, 또는 조직의 기록은 유지되어 온 원질서대로 함께 보존되어야 하며 다른 개인, 가문, 또는 조직의 기록과 섞이거나 결합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fonds은 "형태나 매체에 관계없이, 특정한 개인, 가문,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생산, 축적 및 이용한 기록물 전체"(ISAD(G) Glossary)를 일컫는다. 이처럼 fonds에 기반을 둔 기록물 기술은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의 활동, 기능 등 생산자에 관한 정보가 뒤섞여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에 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은 기록물 생산을 둘러싼 맥락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겪는 조직의 경우 분산된 맥락정보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찾는 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현대의 조직들은 상위/하위 구조의 전통적인 계층적 관계가 아닌 다계층적(poly-hierarchical) 혹은 비계층적(non-hierarchical)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션, 구조, 활동 등을 공유하는 조직 내

의 공식·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의 기록물 기술은 지나치게 조직의 계층구조를 강조함으로써 현대 조직의 복잡·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Bearman & Lytle 1985-86). 다시 말해서 fonds의 외부적 구조, 즉 fonds의 생산, 축적 및 이용으로부터 형성된 출처적 관계(provenancial relationship)를 fonds의 내부적 구조, 즉 series, file, item 등 문서의 그루핑을 형성하는 문서적 관계(documentary relationships)에 반영하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현대 조직의 구조, 기능 및 레코드키퍼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기록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의 전달 과정을 거침에 따라 기록물은 나누어지거나 합쳐지는 등 다양한 보관내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fonds와 생산자의 관계는 더 이상 일대일 관계(a one to one relation)가 아닌 다대다 관계(a many to many relation)의 양상을 보인다. 즉 하나 이상의 생산자가 하나의 fonds에, 또는 하나 이상의 fonds이 하나의 생산자에 연계될 수도 있다(Vitali 2004).

Bearman과 Lytle(1985-86)은 '출처 원칙의 힘(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키비스트들이 조직에 대한 기술을 전거레코드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Evans(1986)는 기록물을 통제하는 데이터 요소 및 표준 세트와 기관(agency)에 대한 정보를 위한 별도의 세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물을 기술하는 정보와 기관을 기술하는 정보는 출처의 개념에 의해 연결된다. 전거파일은 소장 자료의 기술과 연계된 맥락정보를 포함하는 엔트리들로 구성된다. Millar(2002)는 fonds에 기반을 둔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서는 출처라는 지적인 실체와 기록이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뒤얽혀 있음으로 해서 생산자와 생산된 것 간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Millar는 'fonds의 죽음과 출처의 부활'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기술할 때 생산자의 역사, 기록물, 그리고 그 기록물들이 어떻게 아카이브로 오게 되었는가하는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출처 전거데이터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출처가 되는 조직들 간의 관계는 출처 전거레코드에 의해 포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거레코드는 기록물 기술과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검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다.

출처의 원칙은 기록물과 기록물 생성의 원인이 된 활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출처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직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 이용 및 폐기해왔는가 하는 조직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맥락정보 제공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아카이브 업무에서는 출처의 원칙을 검색에 적용하는 데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에 대한 정보의 혼재는 결과적으로 검색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Evans는 레코드그룹의 개념에 기초를 둔 아카이브의 소장목록은 연구자들의 접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것은 아키비스트가 출처의 원리를 적용할 때 조직에 대한 정보와 레코드 자체

에 대한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Evans 1986, 251).

기록물 생산자는 기록물 기술의 핵심이며 기록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점이 된다. 기록물 생산자는 기록물 생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맥락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주제가 아닌 생산자로서 원하는 기록물을 찾을 수 있다. Bearman과 Lytle(1985-86)은 기록물 검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출처정보를 검색의 접근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었다. 접근점은 전거제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통제될 수가 있다. 기록물 기술과 분리된 출처 전거레코드는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기록물 전거가 된다. 전거레코드는 접근점은 물론 기록물 기술 요소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조직명 전거레코드의 경우 엔티티의 명칭, 전거의 정보원, 미션, 기능, 그 엔티티가 보고하는 엔티티 및 관련된 엔티티, 활동한 기간 등이 있다. 개인명일 경우는 출생, 사망, 혼인, 교육, 직업적 지위와 활동, 그 밖의 그 사람이 관여한 활동이나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의 목적은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또는 전기적 사실들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잠재적 이용자는 아카이브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안에 담긴 정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 없다. 출판된 자료와는 달리 아카이브 자료는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설명하려는 의도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인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Roe 1993, 120). 또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돕기 위하여 출처 전거레코드는 기록물 생산 기관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현용기록 관리 단계에서부터 평가, 정리, 기술 등 아카이브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으로 관리된 전거레코드는 기록의 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현용기록 관리나 평가에도 도움을 준다(Bearman & Lytle 1985-86, 24).

셋째, 정보교환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에 대한 기술은 아카이브는 물론이고 도서관 서지시스템과 박물관 다큐멘테이션에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며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의 관리자로서 기록물 기술의 필수요소로 개인의 전기와 조직의 역사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는 전기와 조직의 역사에 대한 국제적인 참고정보원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Pitti 2004, 202).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 정보, 특히 생산자에 관한 정보의 공유가 현실화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물 기술을 생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한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과 생산자에 대한 기술을 분리함과 동시에 연관시키고, 생산자에 대한 전거 레코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자원 간에 연결시키는 것이 웹상에서의 아카이브 기술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록물 기술을 획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Vitali 2004). 기록물 기술과 전거제어를 위한 다양한 표준들이 그 도구의 예가 될 수 있다.

ISAAR(CPF) 2관은 그 범위와 목적에서 맥락정보를 별도로 작성·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기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기술 및 맥락 정보를, 하나 이상의 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같은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물 및 그 엔티티와 관계된 도서관, 박물관 자료 등과 같은 다른 자원들에 대한 기술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기록 관리 실무를 증진시키고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여러 보존소가 보다 쉽게 맥락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준화는 국가간 맥락정보의 공유 또는 연계라는 이점을 가져온다. 즉 표준화는 기록을 생산한 조직, 개인 및 가문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적절하고, 명료한 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 전거레코드의 공유를 돕는다. 기관 간 전거레코드의 교환은 표목, 상호참조 및 그 밖의 다른 부가적인 데이터를 표준에 의거하여 생산하고 전거작업을 목록 활동의 일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가능해진다.

3. 기록물 전거제어 표준

3.1 ISAAR(CPF) 2판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1990년대 중반 기록물 기술의 지표가 될 만한 두 가지 표준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 첫 번째 것은 1994년에 발행한 국제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로 *respect des fonds*에 근거한 4가지 단계층 기술규칙(ISAD(G) 2항 참조)과 기술요소에 의해 기록물을 기술하는 표준이다. ISAD(G)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개정과정을 거쳐 2000년에 그 2판이 발간되었다. 1996년 ISAD(G)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된 ISAAR(CPF)는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위한 표준이다. 그 이후 2000년부터 5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쳐 2004년 ISAAR(CPF) 2판을 완성하였다. ISAAR(CPF) 2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맥락정보 관리를 위한 DTD XML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ISAAR(CPF) 2판 4.13항을 보면 보존소 간에 컴퓨터를 통하여 기록물 전거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포맷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EAC는 ISAAR(CPF)에 준하여 기술된 기록물 전거 데이터를 World Wide Web상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포맷이다.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 표준의 개정은 EAC에 부합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EAC와의 호환을 위해 기술요소들의 조직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우선 ISAAR(CPF)가 초판과 2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기록물 생산자명의 전거제어, 즉 생산자명의 전거표목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ISAAR(CPF)는 국제표준으로서 전거표목의 생산 과정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생산자명의 전거형태는 국가 차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Vitali 2004, 191). 기록물 생산자명 전거제어는 도서관 목록에 있어서의 저자

명 전거제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는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생산자에 관한 정보는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맥락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준화된 전거표목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ISAAR(CPF) 초판과 2판은 기록물 기술과 분리된 생산자 기술에서 전통적인 서지적 전거레코드 이상의 다양한 맥락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Vitali(2004)는 ISAAR(CPF) 2판의 초판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ISAAR(CPF) 초판이 생산자명 전거표목의 확립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2판은 엔티티의 기술을 관리하는 도구로서의 전거제어 표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초판은 엔티티의 구조와 역사 등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면서 생산자의 표준화된 표목을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둔 반면, 2판의 목적은 기록물의 생산자이자 기록물 생산 맥락을 형성하는 조직, 개인, 가문 등의 엔티티를 기술하는 것이다. 초판에서는 “see”와 “see also” 참조를 통해 전거 기입항목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룬 반면, 2판에서는 한 생산자와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별도의 영역으로 관계영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fonds/생산자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생산자들 간의 복잡한 링크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다른 엔티티와의 연계는 보다 폭넓은 환경에서 기록물 전거 레코드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기록물 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기관 등 다른 종류의 정보기관과의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ISAAR(CPF) 2판에서는 아카이브 이외의 목록·기술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려 했다는 점이다. 기술요소 5.1.4(“Standardized forms of name according to other rules”)는 아카이브의 전거레코드 규칙 이외의 다른 규칙에 의해 구축된 전거표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본 표준에 의해 주어진 표목으로 아카이브 기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카이브와 도서관이 공유하는 검색시스템 내에서 다른 규칙에 의해 형성된 표목에 대한 접근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6장은 아카이브 기술시스템 내에서 생산자와 기록물을 별도로 기술하여 연결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가문, 조직 등의 생산자와 기록물 이외의 다른 정보자원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로써 엔티티와 관련 자원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다른 정보전문가들과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ISAAR(CPF) 초판과 2판의 정보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초판이 전거제어영역(Authority Control Area), 정보영역(Information Area), 주기영역(Notes Area) 등의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비해, 2판은 식별 영역(Identity Area), 기술영역(Description Area), 관계영역(Relationships Area), 통제영역(Control Area) 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판은 이 밖에도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기록물 및 다른 정보자원과 연결시키는 데 대한 지침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였다. 식별영역은 초판의 전거제어영역과, 기술영역은 정보영역과 유사하며 관계영역과 통제영역은 초판의 주기영역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특히 관계영역은 초판에서 정보영역의 한 기

술요소로서의 '관계(Relationships)'가 한 가문을 다른 가문, 사람, 조직 등과 연결시키는데 그쳤던 것에 비해 별도의 영역으로 추가되어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ISAAR(CPF) 2판의 구체적인 영역별 기술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식별영역(Identity Area)

기술 대상이 되는 엔티티를 독특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의 표준화된 접근점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요소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① 엔티티의 유형(Type of entity)

필수요소로서 엔티티가 조직, 개인, 혹은 가문인지를 명시하는 요소이다.

② 전거표목(Authorized form(s) of name)

필수요소로서 조직, 개인, 혹은 가문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점을 생성한다.

③ 대등표목(Parallel forms of name)

전거표목이 다른 언어나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 전거표목과 대등한 다양한 형태의 표목들을 기입한다.

④ 다른 규칙이 적용된 표준화된 표목(Standardized forms of name according to other rules)

AACR2 등 다른 규칙에 의해 생성된 표준화된 표목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정보전문가들과의 전거정보 공유를 촉진시킨다.

⑤ 기타 표목(Other forms of name)

식별영역에서 채택되지 않은 표목의 다른 형태를 제시해준다. 그 예로는 약어 등 같은 이름의 다른 형태, 조직명의 변천에 따른 다양한 이름들, 가명 등 개인이나 가문의 다른 이름들, 개인이나 가문의 직함 등이 있다.

⑥ 조직 식별자(Identifiers for corporate bodies)

조직을 나타내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식별자이다.

● 기술영역(Identity Area)

엔티티의 성격, 맥락,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의 역사, 역할, 맥락, 활동 등을 기술한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존립기간은 별도로 기술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묶어서 설명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① 존립기간(Dates of existence)

필수요소로서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이 존재한 기간을 나타낸다.

② 역사(History)

조직, 개인 또는 가문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기술한다.

③ 장소(Places)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이 기반을 둔 곳, 산 곳, 또는 다른 연고지를 나타낸다.

④ 법적 지위(Legal Status)

조직의 법적 지위와, 그 지위가 부여된 날짜를 같이 기술하기도 한다.

⑤ 기능, 직업 및 활동(Functions, occupations and activities)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이 수행하는 기능, 직업, 활동 등을 기술한다.

⑥ 위임/권위의 원천(Mandates/Sources of authority)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이 권력, 기능, 책임,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한 권위의 원천을 가리킨다.

⑦ 내부구조/계보(Internal structures/Genealogy)

조직의 내부적인 행정 구조 또는 가문의 계보 등을 기술한다.

⑧ 일반적 배경(General context)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이 살았거나 활동했던 일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역사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 관계영역(Relationships Area)

다른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조직, 개인 및 가문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① 관련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의 명칭/식별자(Names/Identifiers of related corporate bodies, persons or families)

관련 엔티티의 전거표목과 식별자 및 전거레코드 식별자를 기술함으로써 관련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의 전거레코드로 연결해준다.

② 관계의 범주(Category of relationship)

다른 조직, 개인 또는 가문과의 관계의 범주를 기술한다. 관계의 범주는 국가적인 규칙 및 관례를 따르거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계층적(예: superior/subordinate)
- 시간적(예: predecessor/successor)
- 가족
- 연합(예: provider/client):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③ 관계의 기술(Description of relationship)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의 성격을 기술한다. 상위 기관, 하위 기관, 전임자, 남편, 아내, 아들 사촌 등이 그 예이다.

④ 관계의 날짜(Dates of the relationship)

다른 조직, 개인 또는 가문과의 관계가 지속된 날짜가 기술된다.

• 통제 영역(Control Area)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선거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이다.

- ① 선거레코드 식별자(Authority record identifier)
필수요소로서 국제적 사용을 위해 국가코드를 넣기도 한다.
- ② 기관 식별자(Institution identifiers)
선거 레코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식별자를 명시한다.
- ③ 규칙 및 협약(Rules and/or conventions)
선거레코드 생산에 적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규칙이나 협약을 기술한다.
- ④ 상태(Status)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선거레코드의 현 상태를 명시한다.(예: 초안, 완성, 개정, 삭제)
- ⑤ 상세도(Level of detail)
선거레코드의 상세한 정도를 명시한다. (예: 최소, 부분, 전문)
- ⑥ 생산, 개정 또는 삭제 날짜(Dates of creation, revision or deletion)
선거레코드를 생산, 개정 또는 삭제한 날짜를 기입한다.
- ⑦ 언어와 문자(Language(s) and script(s))
선거레코드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언어와 문자를 기술한다.
- ⑧ 정보원(Sources)
선거레코드를 생산하는데 참조한 정보원을 기술한다.
- ⑨ 유지 주기(Maintenance notes)
선거레코드의 생산 및 변화에 관한 기록이다.

• 조직, 개인, 가문과 아카이브 자료 및 다른 자원들과의 연관

상기한 기술요소의 네 가지 영역 이외에 6장에서는 기록물 선거레코드를 기록물 및 다른 정보 자원의 기술과 연결시키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술요소가 이에 해당된다.

- ① 관련 자원의 식별자와 표제(Identifiers and titles of related resources)
관련 자원을 독특하게 명시하고 선거레코드를 관련 자원의 기술과 연결짓기 위하여 관련 자원의 독특한 식별자/참조코드 및 표제 등을 기술한다.
- ② 관련 자원의 유형(Types of related resources)
아카이브 자료(fonds, series 등), 아카이브 기술, 검색도구, 단행본, 저널 기사, 웹사이트, 사진, 박물관 소장품, 다큐멘터리 필름, 구술사 녹음 등 관련 자원의 유형을 기술한다.
- ③ 관계의 성격(Nature of relationships)

조직, 개인 또는 가문과 관련 자원과의 관계의 성격을 기술한다.

④ 관련 자원 및 관계의 날짜(Dates of related resources and/or relationships)

관련 자원과 관계된 날짜 및 가문, 조직 또는 개인과 관련 자원 간의 관계의 날짜를 기입하고 그 날짜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다음은 ISAAR(CPF) 2판의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ISAAR(CPF) 2판의 구성

영역	번호	기술요소	필수항목	영역별 설명
식별영역	5.1.1	엔티티의 유형	필수	- 기술 대상 엔티티를 독특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제공 - 기록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점 명시
	5.1.2	전거표목	필수	
	5.1.3	대등표목		
	5.1.4	다른 규칙이 적용된 표준화된 표목		
	5.1.5	기타 표목		
	5.1.6	조직 식별자		
기술영역	5.2.1	존립기간	필수	- 엔티티의 성격, 맥락, 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2.2	역사		
	5.2.3	장소		
	5.2.4	법적 지위		
	5.2.5	기능, 직업 및 활동		
	5.2.6	위임/권위의 원천		
	5.2.7	내부구조/계보		
	5.2.8	일반적 배경		
관계영역	5.3.1	관련 조직, 개인 또는 가문의 명칭/식별자		-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
	5.3.2	관계의 범주		
	5.3.3	관계의 기술		
	5.3.4	관계의 날짜		
통제영역	5.4.1	전거레코드 식별자	필수	-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전거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가에 관한 정보 제공
	5.4.2	기관 식별자		
	5.4.3	규칙 및 협약		
	5.4.4	상태		
	5.4.5	상세도		
	5.4.6	생산, 개정 또는 삭제 날짜		
	5.4.7	언어와 문자		
	5.4.8	정보원		
	5.4.9	유지주기		
조직, 개인, 가문과 아카이브 자료 및 다른 자원들과의 연관	6.1	관련 자원의 식별자와 표제		- 기록물 전거 레코드를 기록물 및 다른 정보자원의 기술과 연결시키는 데 대한 지침
	6.2	관련 자원의 유형		
	6.3	관계의 성격		
	6.4	관련 자원 및 관계의 날짜		

3.2 EAC

EAC(Encoded Archival Context)는 개인, 가문, 조직 등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기술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를 기반으로 설계한 프로토타입 표준이다. EAC는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국제기록물생산자전자저제어규칙인 ISAAR(CPF)에 규정된 기술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표준으로 개발되었다. ICA가 1996년에 ISAAR(CPF)를 발간할 무렵 기록물 기술 및 검색도구를 위한 SGML 기반 프로토타입 표준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version 1.0이 1998년에 출간되었다. EAD는 아카이브 기술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전 거래코드로의 링크를 허용하는 속성을 가진 개인명, 가문명, 조직명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전자 및 맥락정보 파일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EAC는 생산자 기술을 위하여 EAD를 확장, 보완한 것이다. EAC Working Group은 2001년 토론토대학에서 가진 회의에서 EAC 설계 목적과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카이브 맥락 정보를 위한 모델이 전통적인 표목 통제 기능도 포함하지만, 이 모델의 주 목적은 “기록물 생산자가 전자 환경에서 발견되고 보여질 수 있고, 기록물을 생산한 엔티티들 간의 관계가 보여지고 발견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키며, 기록물 생산자가 기록물에 대한 기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 대한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Toronto Tenets)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은 맥락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EAC DTD는 다음 장에서 전자파일 교환모델로 소개할 LEAF Project의 협조와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DTD alpha version(2001년 7월)은 LEAF 내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고, 테스트 결과는 2003년 10월에 나온 EAC beta version에 반영되었다. EAC beta version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ISAAR(CPF)가 EAC의 출발점이기는 하나 EAC는 2004년에 개정된 ISAAR(CPF) 2판에 영향을 미쳤다.

EAC는 기록물 생산자 전자정보를 인코딩하는 표준으로서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해준다. EAC는 아카이브 분야에서 독특하게 축적한 생산자 전자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아카이브 전문가들, 혹은 타 분야의 정보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EAC는 아카이브와 도서관 도메인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EAC 요소 내에 @ea(encoding analogue)라는 속성을 두어 EAC 요소들과 MARC와 같은 (변환된)도서관 소스 포맷 필드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Kaiser, et al, 2003). EAC는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맥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물 기술과는 별도로 중요한 자원이 되며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EAC로 인한 생산자 기술정보의 공유는 보존소들이 생산자에 관한 연구조사에 참여야 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EAC는 <eachheader>와 <condesc> 두 개의 필수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EAD와 마찬가지로

두 요소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 요소들이 상위(parent) 또는 하위(containing)의 계층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속성(attributes)을 통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eachheader>

생산자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맥락정보를 제공한다. <eachheader>의 하위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eacid>-eac identifier: 기술문서의 독특한 식별자

<mainhist>-maintenance history: 기술의 생산, 임포팅, 업데이트링, 삭제 등을 기록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이벤트들로 구성

<languagedecl>-language declaration: 기술에 사용한 언어

<ruledecl>-rules declaration: 기술 생산에 사용한 규칙들

<sourcedecl>-source declaration: 기술에 사용된 정보원

<authdecl>-authority declaration: 기술의 범주나 값의 근거가 되는 권위

<eachheader>의 하위요소들 중 <eacid>와 <mainhist>는 필수요소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선택요소이다. <eachheader>는 TYPE(corporate, personal, family), STATUS(draft, edited, deleted), ENCODINGANALOGSYS, LANGENCODING, SCRIPTENCODING, DATEENCODING, COUNTRYENCODING, OWNERENCODING 등 EAC로 작성된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들을 포함한다.

<condesc>

Context description을 말하며 생산자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요소들을 통해 엔티티의 특징을 기술한다.

<identity>-identity: 엔티티가 존립과정에서 사용한 이름 등의 복잡한 구조

<eacrels>-eac relations: 관련 개인, 가문 또는 조직의 기술에 대한 참조

<resourcerels>-resource relations: 관련 아카이브, 서지, 박물관 자원 등의 기술에 대한 참조

<funactrels>-function or activity relations: 관련 기능이나 활동의 기술에 대한 참조

<desc>-description: 전기, 역사 등 엔티티의 특징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

상기한 <condesc>의 하위요소들 중에서 <identity>는 필수요소이고 나머지는 선택요소이다. <identity>는 EAC DTD에서 가장 복잡한 요소로서 엔티티가 사용한 한 개 이상의 이름들 외에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언어로 된 대등한 이름 등을 기입하는 데 사용된다. 전거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은 별도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dentity> 요소에서 AUTHORIZED 속성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eacrels>, <resourcerels>, <funactrels> 등은 생산자 기술이 다른 기술 구성요소들과 갖는 관계를 기술하는 요소들이다. 즉 기술하고 있는 생산자와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EAC 대 EAC 관계), 생산자와 기록물간의 관계(EAC 대 자원 관계), 생산자와 생산자가 관여한 활동 및 기능과의 관계(EAC 대 기능 및 활동 관계) 등을 보여준다.

<desc>는 생산자에 대한 기술을 통제된 형식과 산문 형식 등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다. 각 엔티티 유형에 따라 <persdesc>, <famdesc>, <corpdesc> 등 세 가지 요소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ISAAR(CPF) 2판과 EAC beta version의 기술요소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ISAAR(CPF) 2판과 EAC beta version 대조표

ISAAR 항목	ISAAR 요소명	EAC 태그/속성 명	EAC 확장명	설명
5.	ELEMENTS OF AN AUTHORITY RECORD			
5.1	IDENTITY AREA	identity		
5.1.1	Type of entity	eac@type		EAC에서 type은 표목명 요소에 따라 분류된다.
5.1.2	Authorized form(s) of name	corphead OR pershead OR famhead	Corporate name heading OR Personal name heading OR Family name heading	이 EAC 요소들은 모든 형태의 이름에 사용된다: 'authorized' 속성 값은 전거기관을 나타낸다.
5.1.3	Parallel forms of name	corpgrp/corphead OR persgrp/pershead OR famgrp/famhead		5.1.2 설명을 보시오.
5.1.4	Standardized forms of name according to other rules	corphead OR pershead OR famhead		5.1.2 설명을 보시오.
5.1.5	Other forms of name	corphead OR pershead OR famhead		5.1.2 설명을 보시오.
5.1.6	Identifiers for corporate bodies	legalid	Legal identity code/number	

5.2	DESCRIPTION AREA	desc	Description	ISAAR 2는 자유구문 또는 요소별 기술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i>dates of existence</i> 만은 별도의 요소로 기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AC의 <desc>에서는 <bioghist>하에 개인의 전기 및 조직이나 가문의 역사를 자유롭게 기술하거나 <corpdesc>, <persdesc>, <famhist> 하에서 내용에 따라 분리된 하위요소별로 기술할 수 있다.
5.2.1	Dates of existence	existdesc/existdate	Date	
5.2.2	History	bioghist	Biography or history	
5.2.3	Places	location/place	Location	
5.2.4	Legal status	legalstatus	Legal status	ISAAR에서는 조직에만 해당된다.
5.2.5	Functions, occupations and activities	funactrels funactrel	Function or activity relation(s)	<funactrels>와 <funactrel>는 통제어휘로부터 선정된 function/activity용어인 <funact>, dates, notes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5.2.6	Mandates/Sources of authority	causa	Causa	
5.2.7	Internal structures/ Genealogy	assetstruct	Assets or structure	
5.2.8	General context	env	Environment	
5.3	RELATIONSHIPS AREA	eacrels eacrel	EAC relation(s)	
5.3.1	Name/Identifier of the related corporate bodies, persons or families	eacrel@syskey AND corpname OR persname OR famname		
5.3.2	Category of relationship	eacrel@reltype	Type of relation	ISAAR에는 hierarchical, temporal, family 등 세 범주와 이상의 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associative 범주가 있다.
5.3.3	Description of relationship	eacrel/descnote	EAC relation/ descriptive note	
5.3.4	Dates of the relationship	eacrel/date	EAC relation/ date	
5.4	CONTROL AREA	eachheader	EAC Header	
5.4.1	Authority record identifier	eacid	EAC Identifier	
5.4.2	Institution identifiers	eacid@ownercode		

5.4.3	Rules and/or conventions	ruledocl	Rule declaration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규칙을 명시할 수 있다. 해당 요소에 사용가능한 속성 규칙 등 특정 규칙이 어느 영역에 적용되었는지를 기술할 수 있다.
5.4.4	Status	eachheader@status	Status	
5.4.5	Level of detail	eachheader@detaillevel	Level of detail	
5.4.6	Dates of creation, revision or deletion	mainhist	Maintenance history	
5.4.7	Languages and scripts	languagedecl	Language declaration	
5.4.8	Sources	sourcedocl	Source declaration	
5.4.9	Maintenance notes	maindesc	Maintenance Description	
6	RELATING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TO ARCHIVAL MATERIALS AND OTHER RESOURCES	resourcerels/ resourcerel	Resource relation(s)	
6.1	Identifiers and titles of related resources	archunit/unitid archunit/unittitle bibunit/title musunit/title		
6.2	Types of related resources			EAC 요소인 <resourcerel>은 기록물에 대한 <archunit>, 서지에 대한 <bibunit>,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musunit> 등의 하위요소를 가진다.
6.3	Nature of relationships	resourcerel@ reltype		@reltype은 일반적인 분류를 할 때 사용하며 @type이나 @typekey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6.4	Dates of related resources and/or relationships	resourcerel/date OR archunit/unitdate OR bibunit/imprint/date OR musunit/imprint/date		

@ : 속성, / : 요소간의 모자(parent/child) 관계

※ 이 표는 Encoded Archival Context: Beta(<http://www.iath.virginia.edu/eac/>)에서 ISAAR(CPF) 2판 Draft와 EAC를 비교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ISAAR(CPF) 2판과 다른 부분은 약간 수정하였다.

4. 전거파일 교환 모델: LEAF Project

(Kaiser, et al. 2003; Weber 2004; LEAF 홈페이지 참조)

LEAF(Linking and Exploring Authority Files) Project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Fifth Framework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내에 있는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연구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자금 지원한 것으로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공동 작업을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착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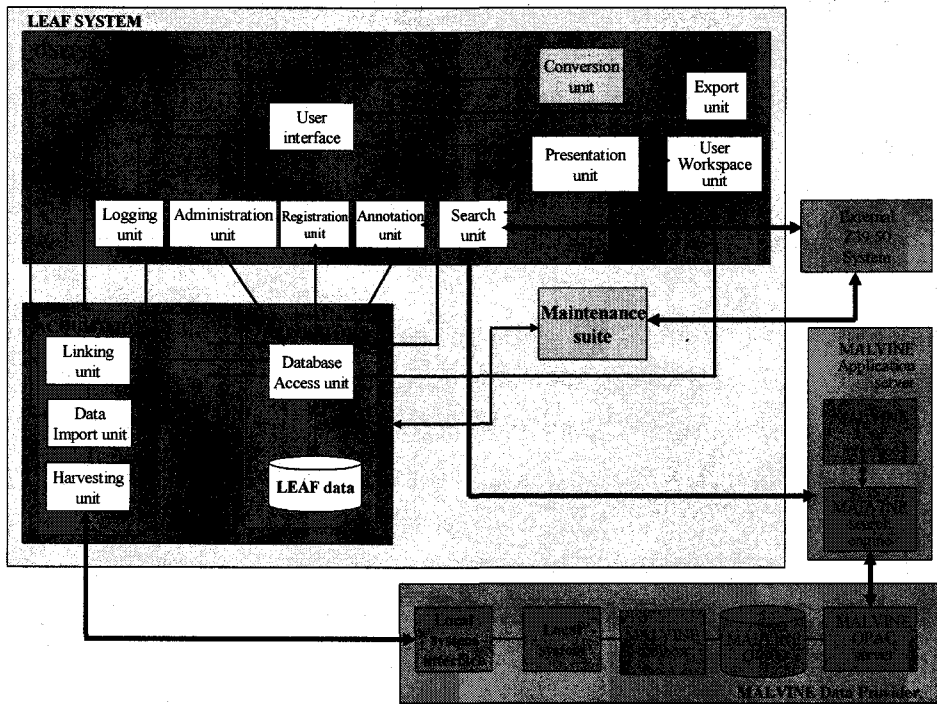
LEAF Project는 2001년 3월에 유럽 10개국 15개 기관(도서관, 아카이브, 다큐멘테이션 및 리서치 센터, 대학, 시스템 개발자 등)이 모여서 시작되었고 2004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파트너들의 다양성만큼이나 사용된 전거 데이터의 본질과 특성도 다양각색이었다. 기록물이 각각 지역적·국가적 표준에 따라 기술되었기 때문에 전거파일에 담겨져 있는 레코드 또한 그 체계가 매우 달랐으며, 포맷은 MARC, MAB2(독일), EAC, 로컬 포맷 등으로 다양하였다. LEAF는 개개의 레코드를 비교해서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전거레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공통의 교환 포맷으로 EAC를 채택하였다. EAC를 택한 이유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 각각의 도메인을 아울러 전거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의 포맷은 없는 실정이고, EAC가 이질적인 구조를 가진 로컬 포맷들(다른 도메인에서 생성되고 다른 기술규칙과 포맷에 의해 인코드된 데이터)을 링크시켜야 하는 LEAF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도서관 간의 전거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통의 데이터 포맷으로 MARC21, UNIMARC, MAB2 등이 있지만 이러한 포맷들은 아카이브 전거레코드의 풍부한 맥락정보를 담을 만큼 융통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LEAF의 주 목적은 흩어져 있는 이름 전거레코드를 모아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서로 연결시켜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LEAF 시나리오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신규 혹은 업데이트된 로컬 이름 전거레코드를 규칙적으로 가져와서 LEAF 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 LEAF 시스템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하나의 공통된 교환 포맷으로 변환시키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한다.
- 같은 사람에 대해 기술한 레코드는 자동적으로 링크된다.
- LEAF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레코드는 탐색 및 검색할 수 있다.
- 검색된 탐색결과를 *Central Name Authority File*에 저장된다.
- 등록된 이용자는 레코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 외부 시스템은 LEAF 서비스를 쿼리할 수 있다.
- LEAF는 외부 시스템을 쿼리할 수 있다.
- 외부 자원을 LEAF 레코드에 링크할 수 있다.
- LEAF에서 검색된 결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search arguments로 사용될 수 있다.

LEAF는 LEAF Data Provider의 전거레코드를 수집, 저장,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앙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LEAF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그림 1> LEAF 시스템 전체 구성도
(출처: Kaiser, et al. 2003)

1) *offline components*

- 로컬 전거파일의 수집
- 로컬 데이터 포맷을 EAC XML representation으로 변환
- 변환한 데이터를 중앙 repository로 импорт하여 같은 사람에 대해 기술한 레코드와 자동으로 링크

2) *online components*

- 레코드 혹은 링크된 기술을 브라우징, 탐색, 주해 등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

3) *Maintenance Suite*

- Data Providers의 관리자가 LEAF 시스템을 로컬 서비스하기 위한 연결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구성, 삭제
- Data Providers의 서버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 연결된 서버들과 쿼리된 서버들의 최신성 유지
- 기술적인 관리상의 요인이 필요하거나 변화할 때 LEAF 시스템에 통고

4) *Interfaces*

- LEAF 기능들을 외부 시스템에서 이용

5. 과제 및 결론

기록물 생산자 전거레코드는 아카이브 기술 시스템 내에서 기록물 자체에 대한 기술과는 별도로 개인, 가문 및 조직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기술하여 관련 기록물 기술에 대한 접근점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록물 기술과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에 대한 맥락정보로서 엔티티와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 엔티티와 그 엔티티가 생산한 기록과의 관계, 엔티티와 다른 자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록물 전거제어는 기록물과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기록물 생산자 기술표준은 말할 것도 없고 기록물 기술표준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ISAD(G)나 ISAAR(CPF)는 각각 기록물 기술과 생산자 전거제어를 위한 국제표준으로서 기본적인 틀만 제시할 뿐이므로 이에 준하여 구체적인 기술규칙은 국가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물 생산자 전거정보 구축과 앞으로의 국제적인 정보교환에 동참하기 위한 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표준의 개발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기록물 맥락정보의 구축을 위해 ISAD(G)와 ISAAR(CPF)에 근거하여 보존기록을 대상으로 한 국가 기록물 기술표준과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 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록물 기술표준은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생산자 기술 표준은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전기 및 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용이하게 해준다. 생산자 기술은 기록물 기술과 연결되었을 때 기록물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산자 기술은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 가

문, 조직 등에 관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전거레코드의 지속적인 관리이다.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현용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기록물 생산 초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물 생애 전반에 걸쳐 수집된 출처에 관한 정보는 기록물에 대한 유용한 전거레코드가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전거레코드는 기록물의 생산 맥락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전거파일의 교환 및 공유이다. 생산자 전거레코드는 수많은 기술레코드와 연결되어 하나의 엔티티와 관련된 모든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축적된 전거레코드는 도서관, 박물관 등 여타 다른 정보관리기관에도 유용한 맥락정보가 될 수 있다. EAC와 같은 데이터 교환 포맷을 통하여 기관 간, 시스템 간, 네트워크 간 전거파일의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전거정보 공유에 동참함으로써 생산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생산자와 관련된 기록물, 도서, 박물관 소장품 등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거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거작업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접근을 통제하고 탐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설문원. 2001. 국제 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 연구. 『지식처리연구』, 2(2): 85-106.
- _____. 2002. 기록물을 위한 단체 전거레코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39-68.
- Bearman, David A. 1989. "Authority Control Issues and Prospects." *American Archivist*, 52: 286-299.
- Bearman, David A. and Richard H. Lytle. 1985-86. "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rchivaria*, 21: 14-27.
- Burger, Robert H. 1985. *Authority Work*.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Gorman 2003에서 재인용)
- Clark, Doris Hargrett. 1990. *Authority Control: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Encoded Archival Context: Beta. [<http://www.iath.virginia.edu/eac/>]
- Encoded Archival Context(EAC). [<http://www.library.yale.edu/eac/>]
- Evans, Max J. 1986. "Authority Control: An Alternative to the Record Group Concept." *American Archivist*. 49: 249-261.

- Gorman, Michael. 2003. "Authority Control in the Context of Bibliographic Control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Authority Control: Definitio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Florence, Italy, February 10-12.
<<http://www.sba.unifi.it/ac/en/program.htm>>.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2004.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2nd ed. Paris: ICA.
<<http://www.ica.org/biblio/ISAAR2EN.pdf>>.
- Kaiser, Max, et al. 2003. "New Ways of Sharing and Using Authority Information: the LEAF Project." *D-Lib Magazine*, 9(11).
<<http://www.dlib.org/dlib/november03/lieder/11lieder.html>>.
- LEAF Project home page. <<http://www.crxnet.com/leaf/index.html>>.
- Millar, Laura. 2002. "The Death of the Fonds and the Resurrection of Provenance: Archival Context in Space and Time." *Archivaria*, 53: 1-15.
- Pitti, Daniel V. 2004. "Creator Description: Encoded Archival Contex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201-226.
- Roe, Kathleen. 1993. "Enhanced Authority Control: Is It Time?" *Archivaria*, 35: 119-129.
- Stibbe, Hugo. 1992. "Implementing the Concept of the Fonds: Primary Access Point, Multilevel Description and Authority Control." *Archivaria*, 34: 109-137.
- Thibodeau, Sharon. 1995. "Archival Context as Archival Authority Record: the ISAAR(CPF)." *Archivaria*, 40: 75-85.
- Tillett, Barbara B. 2003. "Authority control: State of the Art and New Perspective." *Authority Control: Definitio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Florence, Italy, February 10-12.
<<http://www.sba.unifi.it/ac/en/program.htm>>.
- Toronto Tenets: Principles and Criteria for a Model for Archival Context Information. Report from Toronto Archival Context Meeting, March 2001.
<http://www.library.yale.edu/eac/torontotenets.htm#_ftn1>.
- Vitali, Stefano. 2004. "Authority Control of Creators and the Second Edition of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185-199.

Weber, Jutta. 2004. "LEAF: Linking and Exploring Authority Fil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227-236.